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Stereotypes and Emotions Towar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on Social Distances

전영자* · 전예화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유아교육과

Jeon, Youngja · Jun, Yehwa

Human Counselling and Welfare·Early Childhood Education, Inj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distance of college students towar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and influencing factors. The considered factors were stereotypes, emotions and socioeconomic variables. The subjects were 324 college student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October 15-29, 2007.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ollege students' scores of social distance towar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were less than midpoint (3.0), which means that the social distance of college students towar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was not that high. The college students' score of negative stereotype and positive stereotype were very similar. The score of sympathetic emotion was a little higher than negative emotion and positive emotion.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distances, regression analysis was executed. The social distances of students were influenced by negative emotions and positive emotions toward the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Stereotypes towar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distances.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44% of the variance of social distances.

Keywords : social distance,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stereotype, emotion, multicultural

I. 서론

현재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의 유입을 통해 다민족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취업의 증가 등으로 노동구조가 변화하고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이 선택사항이 되어가면서 주변화 된 남성들의 결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인 남성의 수는 1995년부터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의 수를 훨씬 앞서고 있다(설동훈 외, 2006). 이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동남아 등지 여성들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로 한국사회는 더 이상 민족적인 측면에서 단일민족임을 주장하기 힘들게 되었다(장인실, 2006). 정부 차원에서 2006년 '다문화·다종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이 공식적으로 선언되면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안의 정책이 채

†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복지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Jeon, Youngja
Tel: 055-320-3245 Fax: 055-321-9550
E-mail: homejeon@naver.com

택되어 다루어지고 있다(김영옥, 2007). 정부는 결혼이민 여성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왔으며 2008년 2월 다문화가족 지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립 등 정부에서는 이들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결혼이민여성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차별과 편견이 없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일반인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반인들의 결혼이민자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혜은(2009)의 연구가 있으며 아직은 이에 관한 연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의식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나가게 될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최근에 정부차원에서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실태파악이나 부부 적응문제, 자녀문제, 스트레스와 학대문제, 그리고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대상도 결혼이민여성 당사자나 그 가족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이민여성이나 그 가족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다룬 연구로는 정혜은(2009)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뿐이었다. 결혼이민여성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 당사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수용정도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 개인이 특정 집단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인

태도인 사회적 거리감은 그 집단에 대한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회적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과제수행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에 대해서 갖게 되는 편견이나 사회적 거리감은 현실적 갈등에 의해서, 집단범주화에 근거한 사회적 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어렸을 때부터의 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그리고 고정관념 등의 인지적 과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혜숙, 2001).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Cook, 1984; Fiske, 1993; Stangor *et al.*, 1991)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고정관념과 감정 중 어느 것이 더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요인들 중에서 특히 고정관념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중시하여 여러 연구들(Fiske, 1993; Weber & Crocker, 1983)이 행해졌으나 점차 감정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Jussim *et al.*(1995)은 이제까지 관련학계에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의 영향을 무시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연구결과 한 개인에 대한 편견은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인지적인 요소보다는 그 집단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는 감정요인에 의해 더욱 두드러졌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과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한 우선 과제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하고자 인지적 요인 고정관념과 정서적 요인인 감정을 중심으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현재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내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말함)는 총 11만 6,475명으로 이 중 남자는 1만 3,955명(12%), 여자는 10만 2,520명(88%)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03년에 44,416명, 2004년에 57,069명, 2005년에 75,011명, 2006년에 93,786명, 2007년에 110,36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66,115명(중국동포 37,241명 포함), 베트남이 23,301명, 일본이 5,711명, 필리핀이 5,306

명, 캄보디아가 2,564명, 몽골이 2,222명, 태국이 1,951명 순으로 7개 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자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의 총 결혼건수 334,030건 가운데 국제결혼은 12,319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던 것이 2007년에는 총 결혼건수 345,592건 가운데 국제결혼이 38,491건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함으로써 거의 3배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커플이 2000년에는 7,304건(2.2%)이던 것이 2007년에는 29,140건(8.4%)에 달한 반면,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혼인은 2000년에 5,015건(1.5%)에서 2007년에 9,351건(2.7%)으로 완만한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름을 알 수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부부 10쌍 가운데 1쌍은 남편의 직업이 농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북과 전남의 경우 각각 이 비율이 28.0%, 33.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결혼한 남자 농업 종사자 7천930명 가운데 무려 40.0%인 3천172명이 외국인 부인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결혼이 주여성의 다수가 한국의 결혼시장의 하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결혼이 농·어업종사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2006).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부부 가운데 남자가 초혼인 경우는 63.2%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차는 11.3세로 나타나 한국인 부부의 평균 연령차인 2.4세보다 월등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제결혼이 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급증했다. 2007년도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전년(6천280건) 보다 40.6%(2천548건) 늘어난 8천82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증가율은 2003년 16%, 2004년

57.1%, 2005년 25.8%, 2006년 46.8%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통계청, 2008).

이러한 통계수치가 보여주듯이 결혼이민자의 수는 전체 결혼시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이미 되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이혼율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결혼이민자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 현안이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 거리감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정도를 알아보는 유용한 도구의 하나가 사회적 거리감이다(김희자, 2008). 사회적 거리감 개념은 1920년대 미국 내 여러 인종 집단 간 갈등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Bogardus가 처음 사용한 이래로 현재까지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Bogardus(1933)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의 상이한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개념화는 객관적, 구조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특정집단이나 계층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김상학, 2004, 재인용). Westi(1959)는 사회적 거리감은 상호작용의 어떤 영역에 대하여 사람들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감 개념을 주거위치에 따른 거리, 권력위치에 따른 거리, 개인 간 육체적 거리, 개인 간 사회적 거리 등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Martin(1963)은 사회적 거리감을 어떤 대상에 대한 우호적, 비우호적 태도로, Perucci(1963)는 긍정적, 부정적 친화성에 대한 선택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한편 Laumann(1965)은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

〈표 1〉 국제결혼 현황

(단위: 건수,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결혼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국제 결혼	건수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구성비	3.7	4.8	5.2	8.4	11.4	13.6	11.9	11.1
외국인 아내	건수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구성비	2.2	3.1	3.6	6.3	8.2	9.9	9.1	8.4
외국인 남편	건수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9,351
	구성비	1.5	1.6	1.6	2.1	3.2	3.8	2.8	2.7

출처 : 통계청(2008), 인구동태통계연보

까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상학, 2004, 재인용).

결국 사회적 거리감은 객관적 준거에 의해 측정되기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개인이 갖는 태도의 일종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감이란 한 집단의 성원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또는 주관적 거리감)를 말하며 해당 집단과 어느 선까지의 접촉을 허용할 것인가, 즉 수용 가능한 사회적 접촉의 범위로 측정된다(한국여성개발원, 2004).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감을 활용한 연구들은 인종문제보다는 직업계층(나간채, 1988)이나 지역갈등에 관한 연구(한국심리학회, 1988),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김미옥, 2002)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로는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 소수자집단의 하나로 외국인노동자를 검토한 연구와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한 김희자(2008)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정혜은(2009)의 연구를 관련연구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국내 연구로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한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했는데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의 크기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거리감의 원인은 인종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종적 편견은 결혼이민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개발원(2004)에서 전국 규모로 실시한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연구에서는 차별의 감정적 측면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 신념 등을 의미하는 인지적 요소, 느낌의 측면에서 좋고 나쁨의 평가를 말하는 감정적 요소,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는 행동적 요소는 경우에 따라서 서로 일치하거나 혹은 어긋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감을 세가지 요소 중 어느 것과 관련시켜 살펴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인지적 요인(고정관념)과 감정적 요인(감정)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3.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요인

1)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란 한 집단의 성원들이 다른 집단에 대해 함의적으로 가지는 일련의 신념(Knox *et al.*, 1995)이며 또한 특정집단의 성원들은 어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화시켜 믿는 신념들의 집합으로 이것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동반할 때 편견이라고 한다(Allport, 1954; Aronson *et al.*, 1999). 고정관념은 편견의 인지적인 측면으로 때로 과도하게 일반화된 고정관념은 인종이나 성에 기초한 불평등한 지위와 역할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소수집단이 안고 있는 많은 종류의 문제(예를 들어 실업이나 빈곤 등)를 개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돌림으로써 다수집단이 느낄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윤인진, 2000).

미국의 성편견과 인종편견, 한국의 성편견과 지역편견을 비교한 김혜숙(2001)의 연구에서는 성편견적 판단은 감정이, 지역 편견적 판단은 고정관념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개발원(2002)은 청소년들의 여러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고정관념이 사회적 거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과 북한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백인, 중국인, 인도동남아인, 흑인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중동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매력성, 우수성, 합리성, 유순성 등으로 세분화했을 때 동남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비교적 유순하나 비합리적이고 열등한 집단으로 지각했으며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 변인으로는 매력성 및 우수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신 국가가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인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도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감정

감정은 편견의 감정적 구성요소로서 편견을 가진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의 성원을 대할 때 또는 단순히 그것을 생각할 때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느낌 또는 정서를 말한다(이광자 외, 2003). 어떤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고정관념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대상이 속한 집단에 대한 감정에 따라 더 가깝거나 멀게 느끼게 된

다. 고정관념과 같은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감정적 요인은 집단 간 인지와 집단 간 행위를 매개하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거나(Mackie & Smith, 1998), 편견의 인지적 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Jussim *et al.*, 1995)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나 편견연구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감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인지적 요인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변수로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인종차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수인종에 대해 가지는 편견의 근원이 되는 감정이 대상 집단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아니라 상대와의 드문 접촉이나 비친숙성으로 인한 불편함, 혐오, 불안 혹은 긍정적 감정의 부족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김혜숙, 2002). 이는 많은 사람들이 타민족이나 타문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더 큰 불안과 정서적 각성을 경험했음을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라 할 수 있다(김혜숙, 1999).

Stangor *et al.*(1991)의 연구에서는 미국 백인들이 9개의 서로 다른 집단-백인, 흑인, 아시아인, 멕시코인, 유태인, 러시아인, 아랍인, 미국인, 동성애자-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조사하면서 고정관념의 호의성과 감정적 호의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각 집단에 대한 태도는 고정관념보다 감정의 호의성 정도에 의해 더 잘 예측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김상학, 2004, 재인용). Jussim *et al.*(1995)의 연구에서도 정신분열증 환자, 동성애자 등에 관한 편견은 그 사람이 속한 집단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감정에 의해 더 영향 받는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비교’라는 연구에서 사람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나타내는 태도는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보다는 감정에 의해 더 영향 받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북한 사람들에 대하여 지각하는 신념의 측면보다는 연민의 정이나 동포의식과 같은 감정적 차원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김혜숙, 오승섭, 1999).

이상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의 실태를 알아보고, 일반인들이 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이나 고정관념, 감정을 다룬 연구는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타인종이나 타민족에 관한 연구들을 조사함으로써 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어느 나라건 다른 인종이나 다른 민족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갖고 있음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다만 이들이 타인종이나 타민족 나아가서는 타 집단에 대해 갖게 되는 사회적 거리감 또는 편견에 고정관념이 더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감정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마다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정관념과 감정의 측면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이 인식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 및 사회적 거리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이 인식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 및 사회적 거리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들이 인식한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척도의 구성

1)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 널리 쓰였던 Borgadus(1933), Westie(1959) 등의 문항을 기초로 하여 재구성한 김상학(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원리는 ‘사회적 관계맺음을 허용하는 정도’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했던 측정문항들과 전혀 다른 문항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측정문항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재배열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란 공식관계에서 사적관계로, 일대 다수의 관계에서 일대 일의 관계로 옮겨감에 따라 점차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공적인 관계로 만나는 직장동료보다는 오래된 개인적 친구가

더 가까운 관계일 것이며, 여러 명 중의 한명과 만나는 동호회 모임의 참석자보다는 나와 바로 이웃하여 사는 사람이 더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김상학의 척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먼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부터 가족관계의 허용을 의미하는 가족의 배우자로 인정하는 데까지 문항간 차별성과 의미의 누적성을 전제하는 척도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즉 1번 문항에서 7번 문항으로 갈수록 보다 사적이고 일대 일의 관계를 나타내며 또한 보다 가까운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갖는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전혀 꺼리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꺼릴 것이다’ 5점까지 7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신뢰도 계수 $\alpha=.82$).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1차적으로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묘사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1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고정관념보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인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장태한, 2001)에서 동남아인을 낮게 평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이 문항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강력히 동의함’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량이 여러 요인에 걸쳐 .40이하이거나 요인적재량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두 문항을 제거하고 10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 고정관념 7개 문항과 긍정적 고정관념 3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신뢰도계수는 부정적 고정관념이 Cronbach's $\alpha=.86$, 긍정적 고정관념이 $\alpha=.55$ 로 나왔다. 긍정적 고정관념은 문항수가 적어(3문항)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왔으나 분석에 그대로 사용하였다(표 2).

3)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감정

감정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묘사하도록 한 자료와 이학식과 임지훈(2002)의 연구, 그리고 안신호 외(1993)의 연구를 참조하여 13개의 감정문항을 개발했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감정 중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 외에도 우리

〈표 2〉 고정관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측정항목	요인명	부정적 고정관념	긍정적 고정관념
1. 여성결혼이민자는 가난하다		.71	
2. 여성결혼이민자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 한다		.68	
3. 여성결혼이민자는 의사소통 능력이 낮다		.62	
4. 여성결혼이민자는 복종적이다		.76	
5. 여성결혼이민자는 무능력하다		.84	
6.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73	
7. 여성결혼이민자는 후진국 출신이다		.77	
8. 여성결혼이민자는 외모가 출중하다			.72
9. 여성결혼이민자는 순박하다			.67
10. 여성결혼이민자는 용기가 있다			.75
Cronbach's α		.86	.55
고유치		3.76	1.68
설명력 (%)		37.59	16.80
총 설명력 (%)		54.39	

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들에 대한 연민감정까지도 있었다. 이는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겪는 여러 가지 차별이나 가정폭력의 문제들이 도출됨에 따라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화여대 등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한 봉사동아리도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때(정혜은, 2009), 대학생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에는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감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연민감이 포함되어 있어 비록 문항 수는 적었지만 이를 감정척도에 포함시켰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감정에 따라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강력히 동의함’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감정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부정적 감정 5문항, 긍정적 감정 5문항, 연민 감정 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의 신뢰도계수는 부정적 감정이 $\alpha=.83$, 긍정적 감정이 $\alpha=.79$, 연민감이 $\alpha=.54$ 로 나왔다. 연민감정 역시 문항수가 적어(2문항)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왔으나 분석에 그대로 사용하였다(표 3).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남 김해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학생이며 자료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29일 사이에 단과대학, 학년, 성별을 고려하여 할당 표집하였다. 훈련받은 대학생들이 총 3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자료 중에서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4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표 3〉 감정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측정항목	요인명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연민 감정
1. 여성결혼이민자는 피하고 싶다		.78		
2.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		.72		
3. 여성결혼이민자는 부담스럽다		.77		
4. 여성결혼이민자는 불편하다		.64		
5. 여성결혼이민자는 귀찮다		.73		
6. 여성결혼이민자는 매력적이다			.66	
7. 여성결혼이민자는 믿음만하다			.70	
8. 여성결혼이민자는 친근하다			.74	
9. 여성결혼이민자는 정이 간다			.73	
10. 여성결혼이민자는 편안하다			.75	
11. 여성결혼이민자는 불쌍하다				.80
12. 여성결혼이민자는 걱정스럽다				.73
Cronbach's α		.83	.79	.54
고유치		3.72	3.03	2.16
설명력 (%)		24.79	20.17	14.37
총 설명력 (%)		59.33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검증,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64명과 159명으로 비슷했고, 연령은 평균 22.5세였으며, 응답자의 39.3%는 부모나 친척과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61%는 기숙사에 있거나 친구와 같이 혹은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2%의 학생은 종교가 있었으며 특히 불교(33.0%)를 믿는 학생이 많았다. 용돈은 평균 30.8만원이었고 월평균 가계소득은 334.2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은 연구결과 분석에서 평균(22.5세)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은 집단(23세 이상)과 평균보다 낮은 집단(22세 이하)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대학생의 고정관념, 감정 및 사회적 거리감의 일반적 경향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 부정적 고정관념은 5점 만점에 2.91점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고정관념은 2.94점으로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4)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연령	19, 20세	80 (24.7)	성별	남성	164 (50.8)
	21, 22세	97 (29.9)		여성	159 (49.2)
	23, 24세	79 (24.4)		전체	323(100.0)
	25세 이상	68 (21.0)	용돈	25만원 미만	113 (38.2)
	전체	324(100.0)		25-35만원 미만	103 (34.8)
평균 (SD)	22.5세 (2.2세)	35만원 이상		80 (27.0)	
학년	1 학년	84 (25.9)	전체	296 (91.4)	
	2 학년	85 (26.2)	평균 (SD)	30.8만원 (14.0만원)	
	3 학년	90 (27.8)	종교	천주교	40 (12.4)
	4 학년	65 (20.1)		개신교	26 (8.0)
	전체	324(100.0)		불교	107 (33.2)
거주지	부모나 친척과 거주	127 (39.3)		무교	131 (40.7)
	기숙사	129 (39.9)		기타	18 (5.6)
	친구와 자취	40 (12.4)	전체	322 (99.9)*	
	혼자 자취	27 (8.3)	전공	인문사회계열	107 (33.0)
	전체	323(100.0)		자연과학계열	37 (11.4)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46 (14.5)		공과계열	110 (34.0)
	200-40만원 미만	178 (56.0)		예체능계열	31 (9.6)
	400만원 이상	94 (29.6)		의학계열	39 (12.0)
	전체	318(100.1)*	전체	324(100.0)	
	평균 (SD)	334.2만원 (132.3만원)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가 차이가 있음.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

나타났으며 본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고정관념이 특별히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낮다고 알려진 것처럼 (김상학, 2004) 대학생의 경우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표 5>).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감정 중 부정적 감정은 5점 만점에 2.72점으로 긍정적 감정 2.74점으로 중간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민감정은 2.99점으로 다른 감정보다는 다소 높게 나왔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대학생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특별히 높지는 않은 것처럼 그들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대학생들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 5>).

<표 5> 고정관념과 감정의 일반적 경향 (N=324)

변수		빈도	문항수	5점 환산평균	표준편차
고정관념	부정적 고정관념	318	7	2.91	.69
	긍정적 고정관념	322	3	2.94	.59
감정	부정적 감정	317	5	2.72	.67
	긍정적 감정	315	5	2.74	.53
	연민 감정	315	2	2.99	.73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1번 문항에서 7번 문항으로 갈수록 보다 사적이고 일대 일의 관계를 나타내며 또한 보다 가까운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꺼리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정한 개인적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것이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거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정도가 비교적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감은 5점 만점에 2.51점으로 중간적인 3점보다 낮게 나오므로써 본 연구 조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이

부정적 고정관념은 대학생들의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숙사에 있는 학생의 경우 부모나 친척과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고정관념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최근 대학 캠퍼스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숙사에 거주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긍정적 고정관념은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은 집단이 긍정적 고정관념이 낮게 나왔고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긍정적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나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6> 사회적 거리감의 일반적 경향 (N=324)

나는.....	매우 꺼릴 것이다	평균 (표준편차)
1.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2.37(1.08)
2. 내가 속한 동호회에 여성결혼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을		2.35(1.04)
3. 여성결혼이민자와 내가 같은 동호회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2.33(1.08)
4.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웃하여 산다는 것을		2.23(1.10)
5. 여성결혼이민자가 나의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된다는 사실을		2.37(1.12)
6. 여성결혼이민자가 진정한 개인적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2.68(1.18)
7. 여성결혼이민자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3.20(1.25)
사회적 거리감 전체 5점 환산 평균(표준편차)		2.51 (.97)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감정의 차이

연령에 따라 대학생들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감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집단이 부정감정은 높게 긍정감정은 낮게 나왔다. 거주지에 따른 감정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나 친척과 거주하거나 자취하는 학생들에 비해 부정감정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자취하는 학생들이 부모나 친척과 거주하거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긍정감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 유학생들과 접촉의 가능성이 높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부정적 감정은 높게 긍정적 감정은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앞서 고정관념에 있어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이

변인	구분	부정적 고정관념			긍정적 고정관념		
		빈도	평균	t 또는 F	빈도	평균	t 또는 F
성별	남성	162	2.90	-.20	162	2.96	.46
	여성	155	2.92		159	2.93	
연령	22세 이하	181	2.95	1.25	183	3.04	3.67***
	23세 이상	137	2.86		139	2.81	
종교	있음	187	2.87	-1.43	190	2.97	0.95
	없음	129	2.98		130	2.91	
거주지	부모나 친척과 거주	125	3.05 a	4.76**	126	3.03 a	6.47**
	기숙사	126	2.79 b		128	2.80 b	
	자취	66	2.89 ab		67	3.04 a	
용돈	25만원 미만	111	2.86 a	2.77	112	2.89 a	2.61
	25~35만원 미만	101	2.91 ab		102	3.07 b	
	35만원 이상	79	3.10 b		80	3.00 ab	

** $p < .01$, *** $p < .0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든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낮게 나왔는데 반해 감정적 측면에서 부정적 감정이 높고 긍정적 감정이 낮다는 것은 외국인과의 단순한 접촉기회의 증가가 이들에 대한 감정까지 좋게 만들지는 못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거주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나 친척과 살거나 자취하는 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높게 나왔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외국학생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익숙함으로 인하

여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낮게 나타났으나, 감정면에 있어서는 부정적 감정은 높게 긍정적 감정은 낮게 나왔으며 또한 사회적 거리감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상적인 접촉만으로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 학생들에 대하여 선뜻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과 같은 종족인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정과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정관념, 감정,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감정의 차이

변인	구분	부정감정			긍정감정			연민감정		
		빈도	평균	t 또는 F	빈도	평균	t 또는 F	빈도	평균	t 또는 F
성별	남성	161	2.69	-.83	161	2.73	-.61	161	3.02	.73
	여성	155	2.75		153	2.76		156	2.96	
연령	22세 이하	180	2.65	-2.23*	178	2.83	3.14**	181	2.99	-.01
	23세 이상	137	2.82		137	2.64		137	2.99	
종교	있음	188	2.69	-1.26	188	2.75	.24	190	2.98	-.38
	없음	127	2.78		125	2.73		126	3.02	
거주지	부모나 친척과 거주	124	2.68 a	5.87**	124	2.73 a	6.14**	125	3.09	1.82
	기숙사	125	2.87 b		124	2.65 a		126	2.94	
	자취	67	2.53 a		66	2.93 b		66	2.92	
용돈	25만원 미만	111	2.65	1.57	110	2.74	.37	112	2.95	.73
	25~35만원 미만	100	2.63		100	2.80		100	3.00	
	35만원 이상	79	2.79		78	2.79		78	3.08	

* $p < .05$, ** $p < .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변인	구분	사회적 거리감		
		빈도	평균	t 또는 F
성별	남성	163	2.56	.99
	여성	154	2.45	
연령	22세 이하	182	2.35	-2.60**
	23세 이상	136	2.67	
종교	있음	188	2.50	-.24
	없음	128	2.53	
거주지	부모나 친척과 거주	126	2.39 a	7.75***
	기숙사	125	2.76 b	
	자취	66	2.27 a	
용돈	25만원 미만	112	2.42	.22
	25-35만원 미만	99	2.43	
	35만원 이상	79	2.50	

p<.01, *p<.0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분산확대지수(VIF)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분산확대지수의 분포가 1.0에서 2.5사이로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고정관념과 연민감정 간의 상관계수가 .67로서 .6보다 높게 나와 회귀분석에서는 연민감정을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고정관념은 유의미한 설명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감정($\beta=.59, p<.001$)과 긍정적 감정($\beta=-.18, p<.001$) 등 감정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변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표 10〉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 (N=343)

변수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t값	sig T
고정관념	부정적 고정관념	-.04	-.03	-.49	.62
	긍정적 고정관념	-.12	-.07	-1.48	.14
감정	부정적 감정	.86	.59	9.91	.00
	긍정적 감정	-.32	-.18	-3.44	.00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남학생/여학생)	-.14	-.07	-1.56	.12
	연령	.05	.03	.55	.59
	종교유무(있음/없음)	.04	.02	.46	.64
	거주지(기숙사/부모거주)	.13	.06	1.25	.21
	(자취/부모거주)	.03	.01	.28	.78
	용돈 (25-34만원/25만원미만)	.13	.07	1.27	.21
(35만원이상/25만원미만)	.08	.04	.70	.48	
회귀상수			1.422		
R ²			.44		
F값			20.890***		

*p<.05, **p<.01, ***p<.001

높고 반대로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4%로 나왔다. 결국 대학생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이들이 외국여성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지적 측면인 고정관념보다는 감정적 측면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연구결과가 나타내고 있으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차별의 감정적 측면에서 높게 나타난 한국여성개발원(2004)의 연구나, 사회적 거리감 형성에 있어서 감정이 고정관념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하령(2007)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백인들의 9개의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고정관념보다 감정에 의해 각 집단에 대한 태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밝힌 Stangor *et al.*(1991)의 연구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를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가정의 안정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 안정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일반사람들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좁혀져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한 집단의 성원이 다른 집단의 성원에 대하여 느끼는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감은 해당 집단의 성원과 어느 정도의 접촉을 허용할 것인가의 범위로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떤 대상 집단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인 고정관념과 그 집단 성원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혹은 싫어하는가의 정도로 나타내어지는 감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의식전환이 가능한 대학생(장태한, 2001)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감정의 경향성을 알아보고 어떤 요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 부정적 고정관념은 5점 만점에 2.91점이었고 긍정적 고정관념은 2.94점으로 나와 본 조사 대상 대학생들은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낮다고 알려진 것처럼 대학생의 경우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감정에 있어서도 부정적 감정은 5점 만점에 2.72점, 긍정적 감정은 2.74점, 그리고 연민감정은 2.99점으로 나와 대학생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이나 긍정적 감정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연민 감정은 다른 감정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다. 한편 사회적 거리감은 5점 만점에 2.51점으로 나와 대학생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연령과 대학생들의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집단이 긍정적 고정관념은 낮게 부정감정은 높게, 긍정감정은 낮게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은 높게 나왔다. 한편 거주지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감정, 사회적 거리감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부모나 친척과 거주하거나 자취하는 학생들에 비해 고정관념과 긍정적 감정은 낮게 부정적 감정은 높게 나왔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 유학생,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 학생들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이들 유학생들의 대다수가 기숙사에 거주하므로 이들과의 접촉이 증가함으로써 고정관념은 낮아졌지만 이러한 피상적인 접촉만으로는 그들에 대한 감정을 좋게 하거나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생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감정

과 긍정적 감정이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관념은 유의미한 설명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알아보고자 했던 고정관념과 감정 중에서 어느 변수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인가 하는 연구문제가 분명하게 파악되었다. 즉,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고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낮으며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이들 2개 변수의 설명력은 44%인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점차 다문화·다종족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대학생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은 그들을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감정이 비교적 낮게 나온 점도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들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이나 긍정적 감정이 모두 낮게 나왔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아직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음을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이나 부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감정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만으로 이들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하려면 긍정적 고정관념과 긍정적 감정이 적어도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감정보다는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거의 차이가 없게 나온 것을 볼 때 일반인들이 결혼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고정관념과 감정 중 어느 변수가 사회적 거리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고정관념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설명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옴에 비해 감정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오므로써 타민족, 타문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인지적 변인인 고정관념보다는 정서적 변인인 감정에 의해 보다 영향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외국인 학생들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은 아직은 없다. 따라서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학차원에서 마련해 보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생겨나고 있는 현 시점에 가족 관련 학과에서는 이들 센터와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하나의 대학으로 국한됨으로써 대상자들이 너무 비슷한 경향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감과 같은 일반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현시점에서 이런 연구를 시도해 본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실제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접촉경험이라든지 가까운 친인척 중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있는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기엔 조사대상이 보편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이나 감정을 조사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척도를 직접 구성해서 사용했는데 앞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보다 정교화하고 보완하여 이와 같은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또한 다문화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사회적 거리감, 여성결혼이민자, 고정관념, 감정, 다문화

참 고 문 헌

- 김미옥. (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99-126.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7, 169-206.
-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129-159.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13(1), 1~33.
- 김혜숙. (2001).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과 한국의 성편견, 지역편견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15(1), 1-16.
- 김혜숙. (2002). 고정관념 및 편견과 인간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9, 83-101.
- 김혜숙, 오승섭. (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비교. **심리과학**, 8(1), 1-22.
- 김희자. (2008).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고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 9(1), 255-282.
- 나간채. (1988). 직업계층간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 5-26.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 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7(1), 107-123.
- 윤인진. (2000). 소수 차별의 매커니즘, **사회비평**, 여름호.
- 이광자, 엄신자, 전신현. (2003). **현대사회심리학**. 아세아문화사.
- 이하령. (2007). 인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02). 소비관련 감정척도의 개발. **마케팅연구**, 17(3), 55-91.
- 장인실. (2006).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4(4), 27-53.
- 장태한. (2001). 한국 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14, 99-113.
- 정혜은. (2009).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08).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국심리학회. (1988).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

- 사.
- 한국여성개발원.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2006). 인천지역 초등학교의 외국인 인식실태 및 다문화인권 교육을 위한 워크숍: 다름이 아름다운 인권교실. 3-24.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청소년의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세계시민의식 증진방안 연구.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 Aronson, E., Wilson, T. D., & Akert, R. M. (1999). *Social Psychology*. 3rd ed.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s Inc.
- Borgadus, E. S. (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 265-271.
- Cook, S. W. (1984). Cooperative interaction in multi-ethnic contexts. In N. Miller & M. Brewer (Ed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156-186). New York: Academic Press.
- Fiske, S. T. (199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percep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55-194.
- Jussim, L., Nelson, T. E., Manis, M., & Soffin, S. (1995). Prejudice, stereotypes and labeling effects: Source of bias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2), 228-246.
- Knox, V. J., Gekoski, W. L., & Kelly, L. E. (1995). The age group evaluation and description inventory: A new instrument for assessing stereotypes of and attitudes toward age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0(1), 31-55.
- Laumann, E. Q. (1965). Subjective social distance and urban occup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 26-36.
- Mackie, D. M., & Smith, E. R. (1998). Intergroup Cognition and Intergroup Behavior: Crossing the Boundaries, 423-450. in Sedikides, C., Schopler, J. & Insko, C. A. (eds.) 1998. *Intergroup Cognition and Intergroup Behavior*.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rtin, J. W. (1963). Social distance and social stratificati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47, 179-186.
- Perucci, R. (1963). Social distance strategies and intra-organizational stratification: A study of the status system on a psychiatric war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6), 951-962.
- Stangor, C., Sullivan, L. A., & Ford, T. E.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 of prejudice. *Social Cognition*, 9, 59-80.
- Weber, R., & Crocker, J (1983). Cognitive processes in the revision of stereotype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961-977.
- Westie, F. R. (1959). Social distances scales: A tool for the study of stratificati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43, 251-258.

접 수 일 : 2009. 09. 10.
수정완료일 : 2009. 12. 19.
게재확정일 : 2010. 01. 05.